

광주 독립영화 감독 작품 한자리서 본다

광주독립영화관 연말 기획전
30일까지 'Focus on 광주영화'
조재형 '세월 오월' 등 23편 상영
29·30일 '박소현 감독 특별전'도



광주독립영화관은 연말 기획전으로 'Focus on 광주영화' (30일까지)와 '박소현 감독 특별전' (29~30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소현 감독의 '아근 대신 뜨개질' 장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 펼쳐진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연말 기획전으로 'Focus on 광주영화'와 '박소현 감독 특별전'을 준비했다.

지난 26일 시작한 'Focus on 광주영화'는 현재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상영하는 광주독립영화 후원전으로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최근 장편극영화 데뷔작 '똥 싸는 소리'의 촬영을 마친 조재형 감독의 다큐멘터리 '세월 오월', 임용철 감독의 '나고야의 바보들', 김경자 감독의 '소안의 노래', 백종록 감독의 '오프스크린'을 비롯해 총 23편의 광주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작에는 국내의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된 이경호, 허지은 감독의 '해미를 찾아서', 유명상 감독의 '당신은 안드로이드입니까?', 송원재 감독의 '흔한 이름', 오정선 감독의 '인영의 캠코더', 오재형 감독의 '블라인드 필름'도 포함되어 있다. 각 작품들은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신은정 감독의 '베리타스-하버드, 그들만의 진실'과 최성욱 감독의 '이상호의 눈'도 상영한다.

'베리타스-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은 하버드의 역사와 전 지구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며, '이상호의 눈'은 광주 민중미술의 대표 작가인 서양화가 이상호가 바라보는 세상과 그의 눈에 담긴 우리 시대의 불편한 속살을 드러낸다.

'블라인드 필름'은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며, '마침내 물들다'는 웹소설작가이자 통영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유라와 사진작가 정우의 로맨스를 다룬다.

'결음마다 푸른 꿈'은 희귀 난치병 척수소뇌변성증을 앓고 있는 영복이 고향 봉단에 커피숍을



오정선 감독의 '인영의 캠코더'.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순화, 정나라 감독의 '어쩌다 10년'은 10년의 발자국들을 돌아보면서 광주여성영화제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당신은 안드로이드입니까'는 인간의 일자리를 안드로이드가 대체하기 시작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주인공 안다가 안드로이드를 만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양주연 감독의 '40'은 5·18의 기억을 가지고 영화에 출연했던 네 명의 인물들을 조명하며, '지원

의 지원'은 배우 지원이 지원이라는 남자에게 사 이버 스토킹을 당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밖에 '소안의 노래',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 '오월 그날 Who', '오프스크린', '웨딩촬영' 등도 선보인다.

29일과 30일 양일간 여성들의 이야기로 주목받은 박소현 감독의 작품 4편과 개봉작을 선보이는 '박소현 감독 특별전'도 열린다. '아근 대신 뜨개질'은 주말근무와 아근에 지친 나나와 동료들이 아근 대신 뜨개질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또, 50 여년 동안 춤을 추고 35년 정도 대학에서 무용을 가르친 무용가 남정호를 조명하는 '구르는 돌처럼', 1993년 '빨래' 무대에 올랐던 다섯 명의 무용수가 2021년 다시 '빨래' 무대에 오르는 이야기를 담은 '빨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통해 미투 운동이 남긴 질문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에프터 미투'도 상영한다. 30일에는 이번에 개봉하는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KBS국악대상에 소리꾼 김준수 씨 선정

KBS는 올해 KBS국악대상 대상 수상자로 소리꾼 김준수(사진) 씨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991년생인 김 씨는 1982년부터 시작된 KBS 국악대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 수상자다.

중앙대학교 음악극과를 졸업한 김 씨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수궁가 이수자로,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금상 및 국립국악원 온나라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금상을 수상한 재원이다.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헬레네 역, '춘향'의 몽룡 역, '배비장전' 배비장 역, '패왕별희' 우희 역 등 주역을 도맡으며 국악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수궁가를 중심으로 해석한 젊은 소리꾼들의 참신한 무대 '절정'에서 기량을 선보였고, 방송과 뮤지컬 무대 등을 통해 소리의 매력을 전하며 대중과 만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아동인문학상에 고윤자 동시인

2021년 광주전남아동인문학상(아동인문학상)에 고윤자(사진) 동시인이 선정됐다.

광주와 전남의 아동문학인들의 단체인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회장 김복)는 최근 심사회를 열어 올해 아동문학상에 고윤자 동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인문학상은 그 해에 훌륭한 작품을 쓰고 작품집을 출간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03년 도에 처음 실시됐다.

고 동시인은 천강아동문학상,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동시집 '배짱도 좋다'가



2020년 올해의 좋은 동시집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 동시문학회, 새싹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 동시인은 "수상을 계기로 더욱 작품 창작에 매진해 아동문학 발전과 어린이 사랑, 동심이 풍요로운 우리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 30일까지 모집

(재)광주비엔날레(대표 박양우)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등 최대 15명이 활동할 예정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6개월 가량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는 글과 이미지, 영상 분야로 나눠 선발되며 소정의 활동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함께해 매달 한 두건씩의 질 높은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접수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join_us@kwangjubennale.org)로 보내면 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 신청자 대상으로 권오형 작가의 '사용자를 위한 글쓰기', 박영목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1인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기초 개념과 실제 사례', 강수미 교수(동덕여대)의 '동시대미술의 미래와 비엔날레' 강의를 2022년 1월20일 진행되며, 강의 이수 후 기획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서포터즈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한편 (재)광주비엔날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기까지 온라인 서포터즈를 운영한 바 있다. 문의 062-608-42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총 예술대상에 유우상·박인주

우수상 최미애·양도원·신선 씨
예술상 이순미·함승우 등 7명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임원식)는 제 27회 광주예술문화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문화상 대상, 우수상, 예술상 수상자를 선정해 최근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광주예총 예술대상에 광주건축협회 유우상(전남대 건축학과교수), 광주미술협회 박인주(광주대 평생교육 한국화 전담강사)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광주국악협회 최미애(전통무용학원 원장), 광주무용협회 양도원(한국문화예술진흥회 강사), 광주미술협회 신선(호남대 미술학과 초빙교수)씨가 선정됐다.

예술상에는 광주건축협회 이순미(미가대 대표), 광주국악협회 함승우(광주시립창극단원), 광주무용협회 김기숙(대성여중교사), 광주미술협회 리일천(사진작가), 광주사진협회 노국근(사진작가), 광주연예협회 박래호(연예협회분과위원장), 광주영화협회 김남기(영화협회 사무국장)씨가 각각 뽑혔다.

한편 광주예총예술문화상은 광주예총 회원으로 우수한 예술창작 및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문



유우상 박인주
화 발전에 공적이 있는 광주문화예술계 인사에게 매년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 미술계 주요 이슈 이견희 컬렉션·NFT

'이견희 컬렉션'과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올해 미술계 주요 이슈로 조사됐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24일 전문가 설문조사로 선정한 올해 국내 미술계 이슈와 주목받은 전시를 발표했다. 김성호·김영호·김종근·박영택·윤진섭·이선영·조은정 등 미술평론가 7명과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이 조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이견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지난 4월 '이견희 컬렉션' 기증품이 공개됐고, 11월에는 '이견희 기증관' (가칭) 건립 부지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이 최종 결정됐다.

세계 미술시장에서 NFT 자산이 유행하면서 국내에도 디지털 예술품 거래 열풍이 불었다. 크리스티 경매에선 '비플'의 디지털 작품이 6930만 달러(약 783억원)에 낙찰됐고, 국내 첫 NFT 미술 품 경매에선 마리킵의 작품이 288 이더리움(약 6억원)에 팔리며 화제가 됐다.

주목받은 기획전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DMZ아트프 로젝트', 리움미술관 '인간, 일곱 개의 질문', 대구 미술관 '모던라이프'가 뽑혔다.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 양 대리 점 010-5355-1292
합 평 대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